

韓國婦人の 妊娠과 出産의 季節的 變化에 關한 分析

李 時 伯 · 李 任 田

(서울大學校) (韓國人口保健研究院)

<目

次>

I. 緒 論

II. 研究目的

III. 研究資料 및 分析方法

IV. 研究結果 및 考察

V. 結 論

I. 緒 論

一般的으로 妊娠·出産을 生物學的인 현상으로 해석한다면 正常的인 夫婦生活條件下에서 妊娠·出産은 一年을 통하여 均等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妊娠과 出産의 時期가 반드시 생물학적으로만 決定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여기에는 社會·文化的인 要因들이 强하게 作用한다. 즉, 妊娠과 出産에 社會·文化的인 要因이 影響을 주는 社會일 수록 그 發生時期 또한 그 社會의 特性에 따라 각기 다른 特性을 나타낸다.

Huntington(1924, 1938)은 出産時期의 決定에 있어 첫째, 社會環境 및 文化的 要因으로서 祝祭, 禁食, 그리고 個人的 社會的 行動에 制限을 주는 特殊與件과 둘째, 氣候要因으로서 季節에 따른 人間の 性生活的 差異로 妊娠에 주는 影響력이 다르다는 研究를 최초로 시도하였다. 그 이후 同一國家內에서 地理的으로 南·北間의 出産數의 차이를 氣候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結果로 해석한 研究(Rosenberg, 1966), 少數民族間의 出産週期的 變化를 各 少數民族이 갖고 있는 文化的 背景要因으로 본 研究(Cowgill, 1964; Johnson, 1975), 季節에 따른 週期性 研究(Pasamanick et al., 1959; 尹 1983) 등 妊娠과 出産의 變化를 分析한 研究가 수행되었다. 이들 研究들은 모두 妊娠·出産은 社會環境 및 文化的 要因에 의해 그 發生時期가 決定되는 것으로 一

年을 통해 관찰할 때는 週期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妊娠·出産을 시기적으로 관찰한 報告 이외에 妊娠時期의 重要性을 醫學的으로 해석한 研究報告도 있다. 즉, 妊娠·出産의 時期와 精神障礙兒의 出生 및 妊娠合併症의 發生間의 相關性에 관한 연구보고가 있어 注目된다. Knoblock과 Pasamanick(1958)은 美國 오하이오州의 1913~1948年間의 出生記錄 分析에서 늦은 봄과 초여름에 妊娠한 例에서 精神障礙兒의 出生위험성이 높은 事實을 보고하고 이의 原因을 妊娠 3個月을 전·후한 妊婦의 단백질 섭취의 減少와 體外部의 大氣溫度上昇이 胎兒의 中樞神經 發育에 장애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以上の 先行研究들을 종합해 볼 때 妊娠·出産의 時期에 대한 研究는 관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은 말할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妊娠·出産時期도 週期的인 特性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이 分野에 대한 研究는 尹(1984)의 報告 이외에는 아직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出産抑制政策을 推進하고 있고 그 手段으로서 避妊方法을 普及하고 있는 현실에서 妊娠·出産의 時期를 파악한다는 것은 政府의 人口政策上 중요한 資料로 活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研究目的

一般的으로 妊娠과 出産의 時期決定에 미치는 影響은 生物學的인 側面과 社會環境 및 文化的

인 側面에서 각각 分析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避妊普及이 社會運動化 되고 있는 條件下에서는 妊娠・出産의 決定時期를 생물학적인 側面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의 時期는 다분히 社會・文化的인 影響하에서 任意的으로 선택되고 있는 傾向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本研究가 시도된 것이다.

本 研究의 目的은 韓國婦人들의 임신・출산행위는 社會・文化的인 影響을 받고 있는 것으로 假定하여 첫째, 그 發生時期의 週期性을 파악하고 둘째, 都市・農村間의 變化差異를 비교하며 셋째, 妊娠과 出産의 發生時期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Ⅲ. 研究資料 및 分析方法

一部 開發途上國家 및 先進國家가 자랑하고 있는 人口資料는 역시 철저한 出生・死亡 申告制度下에서 生産된 정기적인 資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出生・死亡 申告에 의한 정확한 資料의 획득은 불가능한 實情이다. 따라서 이 分野의 資料는 社會調査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本 研究에 사용된 資料 역시 社會調査에 의해 蒐集된 것으로서,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이 1985年 5月 2日부터 同年 6月 9日까지 약 40日間에 걸쳐 全國에서 標本抽出한 7,600家口를 訪問, 而接調査하여 蒐集된 것이다.

調査對象者는 이들 家口에 屬해 있는 15~49歲 사이의 既婚婦人으로서 總 5,094名이었으며, 이들의 妊娠과 出産數는 1952年 부터 1985年 調査時點 까지의 個人別 妊娠・出産・避妊歷을 근거로 하여 總集計한 것이다.

分析은 妊娠・出産의 變化樣相을 月別 分布로서 결정하고자 하였다. 個人의 임신・출산시기에 대한 選好가 작용하지 않는 自然條件이라면 즉, 人間의 生殖活動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妊娠의 위험 또한 一年을 통해 同一한 確率로 適用될 수 있어 出産數 역시 各日別 또는 各月別로 均等하게 分布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妊娠과 出産의 時期에 個人의 選好가 작용한다면 그 分布는 日・月別로 다른 特徵을 나타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特徵을 測定하기 위한 分析方法으로서 標準指標數(Standard Index Number)를 算出하여 比較할 수 있도록 하였다. 標準指標數라 함은 一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이 每日 동일한 確率로서 발생한다고 假定하여 各月別 妊娠・出生件數를 月別 日數에 따라 標準化시켜 준 것이다. 즉, 月別 임신・출산의 실제 發生件數를 임신・출산 期待數에 標準化시켜 주므로써 標準指標數 100보다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季節의 變動에 의한 週期性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出産의 경우 그 週期性을 當該 月의 發生件數에 기초를 두고 판단하기 보다는 1年間의 發生件數를 관찰하여 산출된 移動平均(moving average) 概念으로 환산하면 더욱 정확한 發生傾向을 알 수 있는데, Seiver(1985)는 다음 公式를 使用하고 있다.

$$MAB_j = \frac{B_j}{\sum_{i=j-6}^{i=j+5} B_i} \times 1, 200$$

여기서 MAB_j 는 j 달(月)에 대한 出産의 移動平均

B_j 는 j 달의 總 出産數

그러나 여기에는 去年度の 出生件數와 月別 分布를 알아야 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一般 社會調査資料의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標準指標數만을 사용하여 妊娠과 出産의 月別 分布를 판단하였다.

Ⅳ. 研究結果 및 考察

1. 妊娠・出産의 一般的인 變化分析

本 資料에서 集計된 1952년부터 1985년까지의 總 妊娠件數는 20,905件, 그리고 總 出産件數는 14,246件이었는데, 여기서 妊娠과 出産數의 차이 約 32퍼센트는 出産에 이르기 前까지의 妊娠消耗의 結果로 해석된다(表 1. 參照). 그러나 本 資料가 過去에 일어났던 사실을 個人의 陳述을 근거로 하여 수집된 것이었기 때문에 妊娠과 出産을 相互連繫시켜 기록할 수 없는 다소간의 不分明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 妊娠消耗의 精確한 水準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으나 李 外

Table 1. Monthly Distribution of Pregnancies and Normal Births

妊娠과 出産의 月別 分布

Month	Urban		Rural		Whole country	
	No. of pregnancies	No. of births	No. of pregnancies	No. of births	No. of pregnancies	No. of births
Jan.	800	560	925	723	1,725	1,283
Feb.	881	567	1,062	707	1,943	1,274
Mar.	910	520	1,074	738	1,984	1,258
Apr.	877	562	986	679	1,863	1,241
May	872	460	963	663	1,835	1,123
Jun.	832	447	981	591	1,813	1,038
Jul.	831	464	918	620	1,749	1,084
Aug.	774	497	939	658	1,713	1,155
Sep.	745	472	842	688	1,587	1,160
Oct.	726	503	856	700	1,582	1,203
Nov.	734	490	829	739	1,563	1,229
Dec.	689	484	859	714	1,548	1,198
Total	9,671	6,026	11,234	8,220	20,905	14,246
Unweighted average	805.9	502.2	936.2	685.0	1,742.1	1,187.2

(1986)의 報告로 보건데 이에 接近하고 있다.

다른 한편, 妊娠과 出産數는 비록 妊娠·出産 歷에 의한 調査記錄이었으나 어느면에서는 다소의 漏落이 있을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本 研究의 目的이 임신과 出産의 發生水準을 測定하는데 있지 않고 時系列의인 變化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社會調査에 의한 資料上의 不完全성은 그다지 큰 問題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妊娠과 出産數를 都市·農村別로 비교해 보면 임신·출산에서 다같이 都市보다 農村에서 發生件數가 더 많다. 이러한 결과는 두가지로 그 原因을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標本抽出時 도시와 農촌의 代表值를 生産하기 위해서 각각 比例確率로 적용시키므로써 도시·農촌의 出産力水準을 최대한 反映할 수 있도록 한 標本設計上의 근거, 그리고 둘째로는 원래의 農村이 가진 높은 出産力이 그대로 反映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言及된 바와 같이 本 研究의 目的이 임신·출산의 精確한 水準을 測定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都市·農村間의 妊娠과 出産의 變化傾向을 알기 위한 補助資料로서

表 1은 利用될 수 있다. 즉, 月別 妊娠·出産의 絕對件數로 兩地域을 比較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2. 妊娠의 月別 變化性 分析

1月부터 12月 까지의 妊娠의 月別 分布는 表 2와 같다. 실제 發生한 妊娠件數를 月別 標準化된 指數에 의거하여 그 分布를 살펴보면 2月에서 6月 까지의 5個月間이 期待妊娠數보다 높으며, 2月과 3月に 妊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妊娠의 發生이 적은 달(月)은 10月부터 12月 사이이며, 12月이 다른 달에 비해 특히 낮다. 妊娠이 選擇的으로 多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具體的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妊娠은 반드시 性生活의 結果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 期間에 특별히 性生活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解釋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一年을 통하여 性生活의 頻度を 관찰하여 季節에 따라 높고 낮음을 報告(Udry and Morris, 1967)하고는 있으나, 同 研究에서도 性生活의 頻도와 妊娠率間에 높은 相關성이 있다는 결론은 얻지 못하였다. 이것은 곧 妊娠을 生物學的인 현상으로서만

해석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다른 要因 즉, 當該年度에 結婚한 경우 時期選擇, 避妊行爲, 그리고 妊娠消耗를 포함한 出產計劃 등 社會·文化的인 현상으로서 이들 變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點을 暗示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Seiver (1985)는 美國의 1947~1976年の 人口動態資料를 근거로 하여 妊娠·出產의 季節的인 週期性을 보고하면서 11월부터 1月 사이에 가장 많은 妊娠이 發生하고 7月과 8月에 가장 낮은 妊娠이 나타난 현상을 生物學的으로 男性의 性호르몬의 生産이 11월에 가장 活潑하며 5월에 제일 低調하다는 他 研究結果(Reinberg, 1974)를 인용하고 전체로 볼 때 妊娠現象을 科學的으로 또는 社會文化的으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問題는 대단히 어렵다.

本 研究資料에서 Reinberg(1974)의 男性호르몬 生産이 11월에 最高水準이 된다는 理論과 最多妊娠發生 可能月을 比較하면 상호 相馳되고 있어 비록 아직은 討議의 여지가 많을 수 있겠지만 性호르몬 生産月에 의한 妊娠時期의 결정 가능성은 本 研究結果에 적용할 수 없고 妊娠의 週期性은 다른 社會·文化的 要因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暗示를 示唆하고 있다.

都市·農村 地域間 임신발생빈도의 月別 分布變化를 보면 이미 앞에서 살펴 본 전체의 變化傾向水準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都市에서는 2月 부터 7月 까지 妊娠標準指標數가 100을 넘어 期待妊娠數보다 높은데 2月에서 4月 까지 3個月사이에 가장 妊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反面에 8月以後 부터는 妊娠發生頻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12月에는 期待妊娠水準보다 훨씬 떨어진 83.9를 보이고 있다. 한편 農村에서도 都市와 비슷한 樣相을 보이나 妊娠期待值 100보다 높은 달이 2月 부터 6月 까지로서 都市에서 보여준 7月的 높은 妊娠水準을 農村에서는 볼 수 없는 點이 다르다. 그리고 妊娠이 가장 많은 달은 2月과 3月로, 특히 2월에 集中(妊娠標準指標數 123.23)되어 있음이 注目된다. 그리고 여름철 이후에 期待妊娠水準以下로 떨어지는 현상은 이미 都市에서 보여준 양상과 비슷하다.

本 研究에서 나타난 妊娠의 月別 分布의 특징은 우리나라 資料에 의한 卍(1984)의 分析報告와 比較할 때 同一한 樣相으로서 2月~6月까지에 妊娠發生이 높은 韓國型 妊娠의 季節現象을 再確認시켜주고 있다. Udry와 Morris(1967),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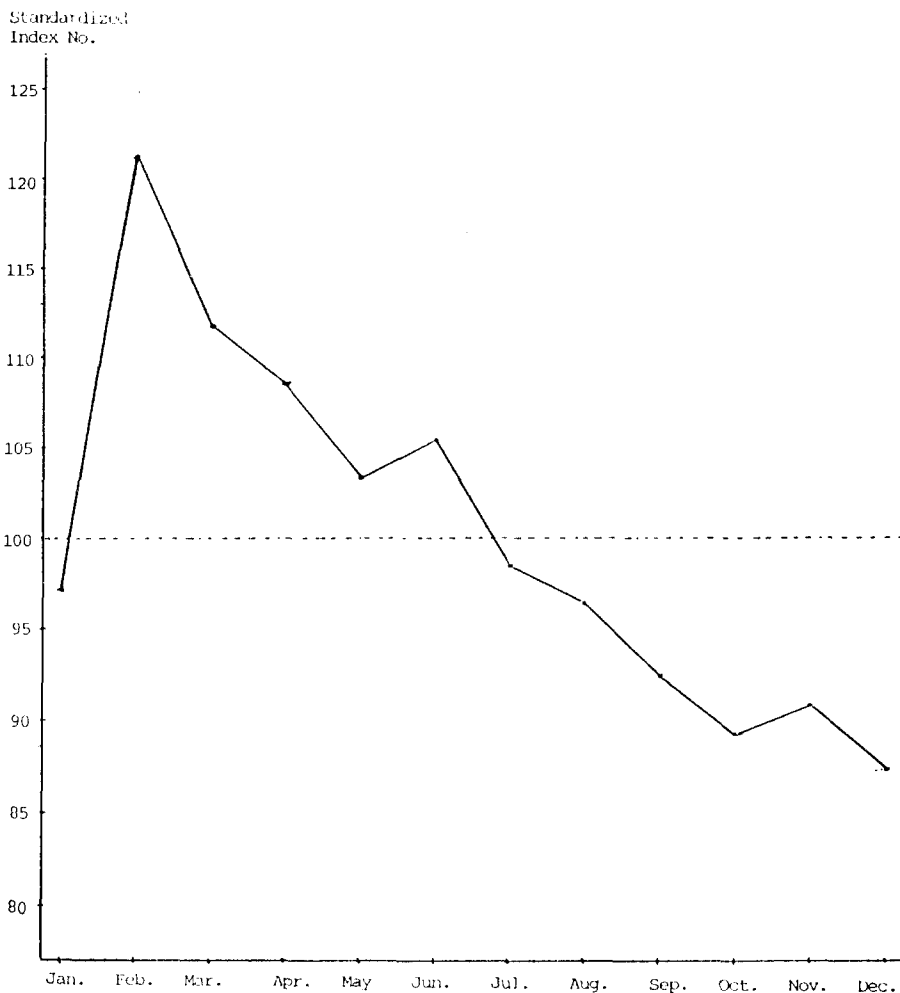
Table 2. Monthly Distribution of Pregnancies

妊娠의 月別 分布

Month	Urban		Rural		Whole country	
	No. of pregnancies	Standard index	No. of pregnancies	Standard index	No. of pregnancies	Standard index
Jan.	800	97.40	925	96.95	1,725	97.16
Feb.	881	118.75	1,062	123.23	1,943	121.16
Mar.	910	110.79	1,074	112.56	1,984	111.74
Apr.	877	110.33	986	106.79	1,863	108.43
May	872	106.16	963	100.93	1,835	103.35
Jun.	832	104.67	981	106.24	1,813	105.52
Jul.	831	101.17	918	96.21	1,749	98.51
Aug.	774	94.23	939	98.42	1,713	96.48
Sep.	745	93.72	842	91.19	1,587	92.36
Oct.	726	88.39	856	89.72	1,582	89.10
Nov.	734	92.34	829	89.78	1,563	90.97
Dec.	689	83.88	859	90.03	1,548	87.19
Total	9,671	—	11,234	—	20,905	—

Fig. 1. Monthly Distribution of Pregnancies

妊娠의 月別 分布



리고 Seiver(1985)가 美國의 경우로서 10月~11月 사이에 높은 妊娠을 報告한 경우와는 季節的으로 相異한 點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이 妊娠의 時期가 國家間에 季節的 差異를 뚜렷이 보이고 있는 理由는 아마도 社會·文化的인 차이로 해석해야 옳을 것으로 보인다.

表 2에서 나타난 妊娠時期는 1952年 以後 1985年 調査時까지의 研究對象婦人의 總妊娠數를 年度에 관계없이 總合計시킨 平均概念의 結果로서 그 變化를 보인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의 우리 社會의 變動에 따른 다소간의 특징이 함께 나타내준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傾向에 對해서는 適合한 資料의 提示로 볼 수 없을지 모른다. 그래

서 보다 最近의 妊娠發生의 季節的 變化를 좀더 精確하게 알기 위하여 대상부인의 最終妊娠만을 選擇하여 그 時期를 分析하였다.

表 3은 總 4,892件의 最終妊娠이 發生月別로 分布된 것인데, 앞서 表 2에서 全體 妊娠發生數가 보여준 특징과 비슷하다. 즉, 2월에 妊娠標準 指標數가 132.9로 集中되어 있으면서 6月까지 期待妊娠指標는 100을 웃돌고, 그후 계속 떨어지며 12月이 80.9로 가장 낮다.

한편 表 3에서는 婦人의 婚前 就業經驗與否와 教育水準에 따른 妊娠時期의 分布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婚前 就業經驗有無別 最終妊娠의 時期는 就業經驗群과 無經驗群間에 커다란 차이는

Table 3. Monthly Distribution of the Last Pregnancy by Pre-marital Working Experiences and Education Levels
 婦人の結婚前就業經驗 및 教育水準에 따른 最終妊娠의 月別 分布

Month	Working experiences				Education levels				Total
	Ever employed	Never employed	Under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or more	No. of Standard pregnancies index	No. of Standard pregnancies index	No. of Standard pregnancies index	
	No. of pregnancies	No. of pregnancies	No. of pregnancies	No. of pregnancies	No. of pregnancies				
Jan.	180	213	149	126	118	105.88	393	94.6	
Feb.	202	297	236	143	120	119.21	499	132.9	
Mar.	211	279	215	131	145	130.10	491	118.2	
Apr.	188	276	213	125	127	117.76	464	115.4	
May	186	224	177	114	120	107.67	410	101.3	
Jun.	163	238	176	118	107	99.21	401	100.3	
Jul.	158	234	174	131	86	77.16	392	94.3	
Aug.	155	252	186	120	100	89.73	407	97.9	
Sep.	148	233	188	98	95	88.09	381	94.8	
Oct.	143	222	153	125	87	78.06	365	87.9	
Nov.	140	213	155	93	106	98.28	353	87.8	
Dec.	151	185	145	89	101	90.62	336	80.9	
Total	2,025	2,866	2,167	1,413	1,312	—	4,892	—	

없으나, 就業經驗群에서는 1월부터 5월사이가 妊娠의 多發時期로 되어 있는 反面 就業無經驗群은 2월에서 4월사이로 集中되어 있다. 그리고 教育水準別 변화양상의 차이는 各集團別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國民學校 以下の 學歷群은 2월부터 4월사이가 妊娠多發月로 그후 떨어졌다가 8월과 9월에 다시 期待妊娠指數 100을 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中學校 學歷群이 보인 1월부터 4월까지의 妊娠多發은 대체로 지금까지 나타난 樣相과 共通點이 있었으나, 그후 6월과 7월, 그리고 10월에 다시 妊娠多發을 나타내는 다소 不規則的인 變化를 보였다. 그리고 高等學校 以上の 學歷群은 全體 妊娠變化가 보인 특징속에서 비슷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한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즉, 婚前 就業有經驗集團과 無經驗集團, 그리고 國民學校以下 및 中學校 學歷群 모두에서 妊娠標準指數 130을 넘는 妊娠多發月이 2월인데 反해 高等學校以上 學歷群의 경우는 同 妊娠多發月이 3월이라는 點이다. 婚前 就業經驗與否別 및 學歷水準別 最終妊娠의 發生月別 分布를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는 대체로 共通點을 찾을 수 있으나, 各集團別間에 있는 약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주어진 現象

以上の 解釋은 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3. 出產의 月別 變化性 分析

出產의 月別 分布 分析의 결과는 表 4와 같다. 期待出產指數 100을 넘는 標準指數를 나타내는 달은 1월부터 4월까지로서 이 기간동안에 가장 많은 出產을 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월은 出產標準指數가 116.58로 最高頂點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5월부터는 出產이 下降하고 있으나 9월以後 다시 회복, 10월에는 99.43으로 期待出產水準 100에 接近하여 11월에는 104.96으로 또 다른 頂點을 보인다.

出生의 發生이 1월부터 4월사이에 集中되고, 특히 2월에 頂點을 이루고 있는 사실은 妊娠의 發生分布와 共通點을 가지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妊娠과 出生이 同一事象으로 직접 連繫되어 發生한다면 1월부터 4월사이의 높은 出生件數는 4월부터 7월사이에 妊娠이 많이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本 分析結果로서 妊娠多發月과 어느정도 一致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婦人들의 妊娠과 出產은 選擇의 인 計劃下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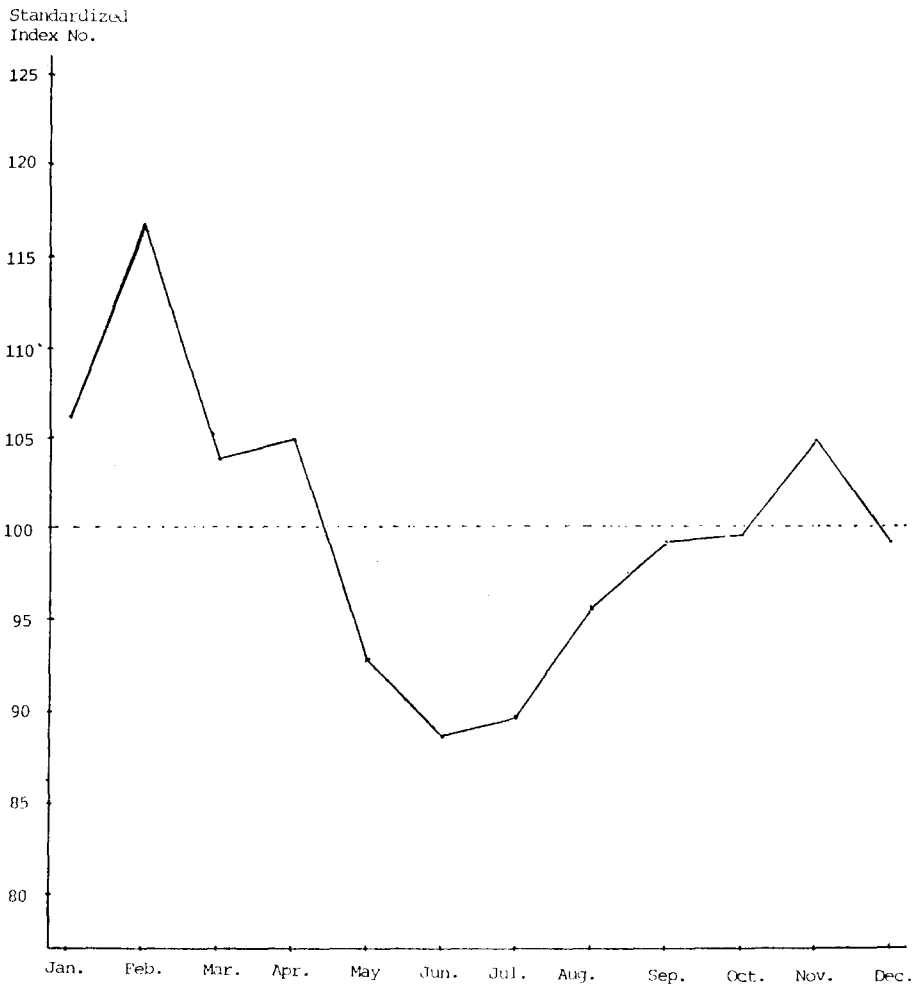
出生의 月別 分布를 都市·農村의 地域別로

Table 4. Monthly Distribution of Normal Births
出產의 月別 分布

Month	Urban		Rural		Whole country	
	No. of births	Standard index	No. of births	Standard index	No. of births	Standard index
Jan.	560	109.42	723	103.56	1,283	106.04
Feb.	567	122.65	707	112.12	1,274	116.58
Mar.	520	101.60	738	105.71	1,258	103.97
Apr.	562	113.47	679	100.50	1,241	105.99
May	460	89.88	663	94.97	1,123	92.82
Jun.	447	90.25	591	87.47	1,083	88.65
Jul.	464	90.66	620	88.81	1,084	89.59
Aug.	497	97.11	658	94.25	1,155	95.46
Sep.	472	95.30	688	101.83	1,160	99.07
Oct.	503	98.28	700	100.26	1,203	99.43
Nov.	490	98.93	739	109.38	1,229	104.96
Dec.	484	94.57	714	102.27	1,198	99.01
Total	6,026	—	8,220	—	14,246	—

Fig. 2. Monthly Distribution of Normal Births

출産의 月別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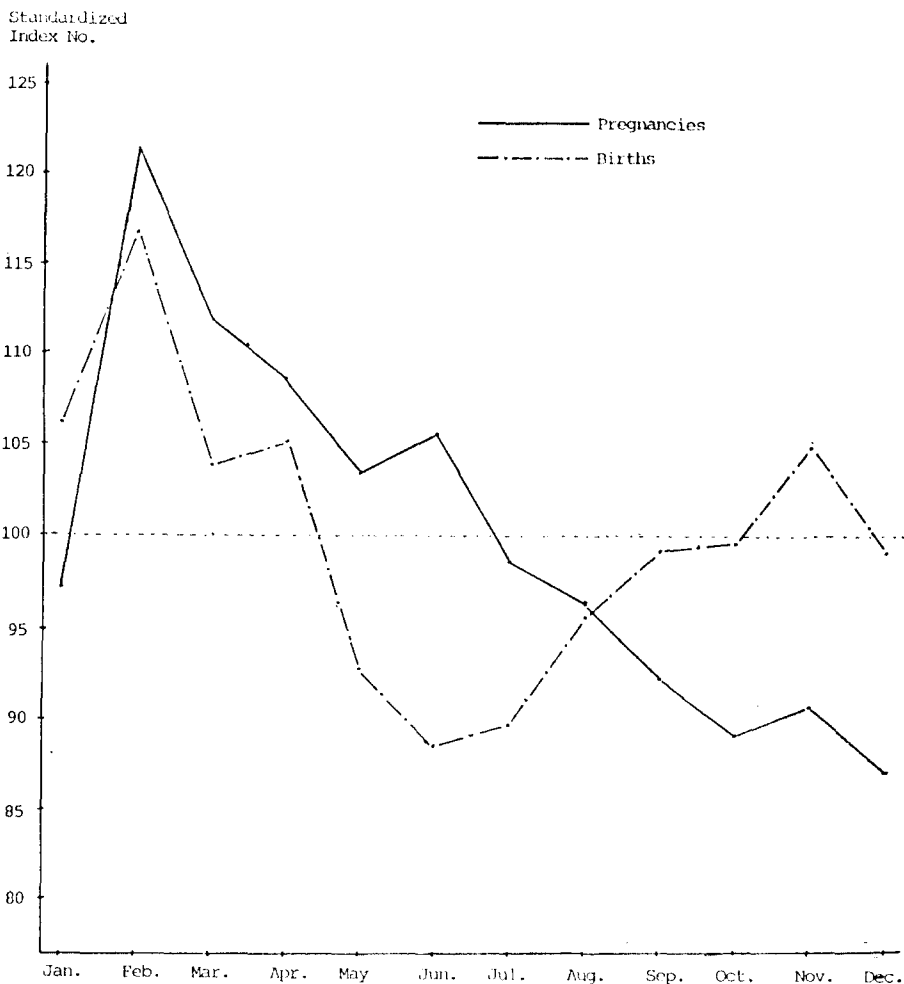
특정의 차이를 보면, 都市와 農村이 모두 共通的으로 1월부터 4월 사이에 出生이 높으나 農村에서는 9월부터 12월 사이에 또다른 出生多發現象을 보이고 있는 것이 都市와 다르다. 초여름 내지 여름철에 出生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出生이 대체로 봄철에 많이 發生하고 있는 현상을 다른나라와 比較해 볼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47~1976년까지의 美國의 人口動態申告資料를 分析한 Seiver(1985)의 報告를 보면 美國內 各 地域에 따라 약간의 變異를 가지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많은 出生을 나타내며, 특히 9월이

가장 많은 出生의 頂點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季節的으로 反對的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분명치 않다. 그러나 Seiver는 出生과 妊娠을 連繫시켜 出生이 많은 季節의 妊娠豫測 月(月)을 算出한 바 美國의 7월~9월의 出生은 10월~12월의 妊娠의 原因으로 예측하여 妊娠機會와 性生活에 미치는 氣候(氣溫)條件의 可能性을 示唆하고 있다. 그리고 Reinberg(1974)가 報告한 바와 같이 男性호르몬 生産이 11월에 가장 活潑하며 반대로 5월에 가장 低調하다는 主張으로는 美國의 妊娠과 出生의 發生은 季節的으로 一致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妊娠이 봄에서 초여름 사

Fig. 3. Monthly Distribution of Pregnancies and Normal Births

妊娠과 出産의 月別 分布



이에 多發하고 있음은 季節的인 影響으로 해석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男性호르몬의 生産水準時期로 볼 때는 反對的인 現象으로 나타나고 있어 肯定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韓國에서의 妊娠과 出産이 봄에 많이 發生한다는 것은 분명히 個人的 選好 내지 出産計劃 等の 社會·文化的인 要因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4. 人工妊娠中絶이 出産의 週期變化에 주는 影響

모든 妊娠이 전부 正常出産으로 移行될 수 있다고 假定한다면 妊娠의 週期성을 통하여 出生의 季節的 週期性 또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資料의 質에 따라, 그리고 妊娠에서 出

産으로 가기 前에 發生할 수 있는 妊娠消耗로 인하여 妊娠과 出生은 그 時期가 相互 一致할 수 없다.

앞서 제시된 結果에서도 妊娠과 出生의 時期가 相互 連繫되지 못하고 離脫되고 있는데, 그 原因은 妊娠消耗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人工妊娠中絶의 發生時期로 그 影響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妊娠消耗은 人工妊娠中絶과 自然流産, 그리고 死産을 포함하지만, 本 分析에서는 人工妊娠中絶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週期性變化에 주는 精確한 影響력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本 資料에 나타난 總妊娠件數 20,905와 總出生件數 14,246과의 差異인

Table 5. Monthly Distribution of Induced Abortions by Areas

人工妊娠中絶의 月別 分布

Month	Urban		Rural		Total	
	No. of abortions	Standard index	No. of abortions	Standard index	No. of abortions	Standard index
Jan.	162	65.19	118	60.04	280	62.92
Feb.	173	77.08	103	58.02	276	68.66
Mar.	239	96.18	184	93.62	423	95.05
Apr.	379	157.60	276	145.11	655	152.09
May	286	115.09	248	126.18	534	119.99
Jun.	235	97.72	185	97.27	420	97.52
Jul.	257	103.42	201	102.27	458	102.91
Aug.	261	105.03	208	105.83	469	105.38
Sep.	190	79.01	186	97.79	376	87.30
Oct.	298	119.92	233	118.55	531	119.32
Nov.	226	93.98	168	88.33	394	91.48
Dec.	220	88.53	204	103.80	424	95.27
Total	2,926	—	2,314	—	5,240	—

6,759 件數가 바로 妊娠消耗로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李外(1986)의 研究報告에 근거하여 전체 妊娠消耗의 80퍼센트를 人工妊娠中絶로 본다면 本資料의 總 5,240件의 人工妊娠中絶數는 豫測數인 54,072件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本資料에 나타난 크기로 그 影響力을 測定하는데는 어느정도 價値가 있다고 보아진다.

表 5는 1952~1985까지의 人工妊娠中絶發生件數를 月別 分布로 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觀察할 때 人工妊娠中絶이 가장 많이 發生한 달은 6월을 제외한 4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9월을 건너 10월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4월은 標準指數가 152.09로 人工妊娠中絶의 發生이 集中되어 있으며, 그 다음이 5월과 10월로 각각 119.99, 그리고 119.32를 보이고 있다. 人工妊娠中絶이 가장 적게 發生하고 있는 달이 1월과 2월이다. 都市와 農村間의 季節的인 人工妊娠中絶發生 差異는 없다. 다만 두 地域의 月別 發生樣相으로 볼 때, 12월에 農村에서 標準指數가 103.80으로 都市地域의 88.53보다 월등히 높을 뿐이다.

앞서 그림 3에서 보여준 妊娠과 出產의 月別 分布에 人工妊娠中絶의 月別 發生分布를 적용시켜 妊娠과 出產에 미친 影響力을 보고자 한다.

먼저 表 1과 4에서 보여준 妊娠과 出產의 月別 發生差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3個月 정도의 差異를 나타내면서 分布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妊娠이 많이 發生한 2월부터 7월사이에서 月差 없이 出產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11월의 多出產은 2월의 妊娠結果로 보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解釋된다. 그러나 人工妊娠中絶이 4월과 5월, 그리고 7월, 8월, 10월에 많이 發生하여 결국 이에 相應하는 出產月의 抑制影響은 1월과 2월, 그리고 4월, 5월, 7월에 미칠 것으로 豫想되나 실제 資料에서는 5월 이후에야 出產이 낮아지고 있어 出產과 人工妊娠中絶의 發生時期가 각각 完全하게 一致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理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多少의 關聯性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妊娠消耗 가운데 人工妊娠中絶만 擇하고 있기 때문에 自然流產과 死產의 영향력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人工妊娠中絶의 發生時期는 정확히 알 수 있으나 이 時期에 發生한 人工妊娠中絶이 妊娠 몇 個月만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정확한 比較가 될 수 없다는 點이다. 만일 대부분의 人工妊娠中絶이 發生한 때를 妊娠 2個月 前·後로 본다면 이 時期

의 人工妊娠中絶은 妊娠이 가장 많은 2月과 3月의 妊娠에 해당되며, 4月, 5月の 높은 人工妊娠中絶은 10月과 11月の 出産에 영향을 주고 있어 결국 人工妊娠中絶에 의한 出産時期의 결정은 相互 一致되고 있는 것으로 說明된다.

V. 結 論

妊娠과 出産의 發生時期가 自然的인 현상으로 年을 통해 均等히 分布되어 있지 않고 特定 月 또는 季節에 集中되어 있는 것은 國家 또는 民族의 社會·文化 및 宗教的인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背景에서 本 研究은 韓國婦人의 妊娠·出産行爲도 社會·文化的인 영향을 받고 있을 것으로 假定하여 첫째, 그 發生時期의 週期성을 파악하고 둘째, 都市·農村間의 變化差異를 比較하며 셋째, 妊娠과 出産의 發生時期를 分析하고자 試圖된 것이다.

月別 妊娠發生 分布를 標準指數로 보면 2月~6月 사이에 多發하고 있는데 특히 2月과 3月에 가장 妊娠이 많은 頂點을 이루고 있다. 反面에 妊娠이 가장 적은 달은 10월부터 12月사이이다. 妊娠發生의 月別 分布를 都市·農村의 地域으로 볼 때도 앞서 언급된 全體 分布樣相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出産의 月別 分布를 보면, 1월부터 4月 사이에 가장 많이 出産을 하고 있다. 특히 2月은 出産의 標準指數가 116.58로 最高의 頂點을 이루고 있으며, 5月 以後 여름철 사이까지 出産水準이 期待値보다 낮다. 그러나 9月 이후 다시 회복되어 10月에는 期待出産水準 100에 接近하고 11月에는 104.96로 또다른 頂點을 이루고 있다. 出産의 月別 分布를 都市·農村間의 特性으로 비교해 볼 때 큰 差異는 없다. 1月에서 4月 사이에 兩地域이 다 같이 出産이 많으며 比해 農村은 9月에서 11月 사이에 또다른 多出産時期를 가지는 것이 都市와 다르다.

以上の 妊娠과 出産의 發生時期를 가지고 우리나라 婦人들의 出産行態를 보건데, 妊娠·出産의 選好성이 2月~4月 사이에 集中되어 있는 季節的 特性을 보이고 있다. 季節的 特性을 가지게 된 背景이나 理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봄철에 妊娠, 出産하고자 하는 경향은 뚜렷하다. 특히 自然的인 條件에서는 妊娠과 出産의 관계는 時期的으로 3個月 정도의 差異를 두고 相互發生曲線이 一致하여야 하겠으나, 本 分析結果 그렇지 못하고 약간의 差異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人工妊娠中絶을 포함한 妊娠消耗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妊娠 및 個月에서 人工妊娠中絶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妊娠, 出産, 그리고 人工妊娠中絶의 發生曲線을 각각 精確하게 連繫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 婦人들의 妊娠多發季節이 上半期, 특히 2月~6月 사이에 集中되어 있다는 事實은 人口政策上 대단히 중요한 資料로 利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2月~6月 사이에 避妊普及을 積極化 시키므로써 妊娠發生의 可能性을 最大限 억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出産抑制效果 까지도 期待할 수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尹鳳子, “韓國婦人의 妊娠과 出産의 週期성에 관한 研究”, 서울醫大學術誌, 25(2):156-166, 1984.
- 李時伯·李任田·尹鳳子, “韓國婦人의 妊娠消耗水準推定”, 人口保健論集, 6(1):24-39, 1986.
- Cowgill, U., “Recent Variation in Season of Birth in Puerto Rico”, *Proc. Nat. Acad. Sci.*, 52:1149-1151, 1964.
- Huntington, E., *Civilization and Climate*,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24.
- Huntington, E., *Season of Birth: Its Relation to Human Abilities*, John Wiley and Sons, New York, 1938.
- Johnson, T., Tan Boon Ann and V.T. Palan, “Seasonality of Births for West Malaysia's Two Main Racial Groups,” *Human Biology*, 47(3):295-307, 1975.
- Pasamanick B., S. Dinitz and H. Knoblock, “Geographical and Seasonal Variations in Birth Rates,” *Health Report*, 74:285-288, 1959.
- Reinberg, A., “Aspects of Circannual Rythms in Man,” in E.T. Pengelly(ed.), *Circannual Clocks*,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pp. 436-440.
- Rosenberg, H.M., *Season Variation of Births, United States 1933-63*, U.S. Dep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PHS Publ. 1,000, Series 21, No. 9,

1966.

Seiver, D.A., "Trend and Variation in the Seasonality of U.S. Fertility, 1947~1976," *Demography*, 22(1):89-100, 1985.

Udry, J.R. and N.M. Morris, "Seasonality of Coitus and Seasonality of Birth," *Demography*, 4(2): 673-679, 1967.